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기록 사료연구

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사
양윤미

아름다운정년



서울특별시

『사료를 통해 본 노동운동 역사기록』의 첫장을 열며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건립추진단계부터 전태일, 이소선 그리고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왔다. 약 19만 건에 달하는 자료 수집은 2018년 전태일기념관 건립이란 오랜 뜻이 이뤄지면서 가능했다. 청계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주도했던 조합원들과 가족 그리고 전태일재단이 중심이 되어 기증과 기탁에 앞장서 주셨다.

수집자료의 내용은 대부분 전태일과 이소선 그리고 청계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전태일 분신행거 직후 사회적 분위기와 어머니 이소선의 노력, 청계노조의 역사와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시대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와 사진, 박물류 등 다양한 유형이다. 그중에서 전태일 친구이자 청계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이승철이 기증한 『정기대의원대회 사업 보고』서는 청계노조가 설립된 이후 매년 주요 사업 활동을 정리하여 발행한 보고서로 노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보고서는 제1차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1971년부터, 1980년 제10차 대의원대회까지 발행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1970년대 노동환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더불어 청계노조 초기 아카시아 소모임 초대 회장을 맡았던 유정숙은 「청계피복노보」, 「청계피복노조소식」과 노조 활동이 보도된 신문자료

등 당시 청계노조 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증했다. 이외에도 유정숙은 1970년 전태일과 삼동회가 평화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제작했던 설문지와 청계노조 활동사진, 시위를 위해 직접 제작한 피켓, 현수막 등은 청계노조의 생생한 투쟁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기증하였다.

현재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시대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관리와 활용이 용이 하도록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는 유형과 주제가 혼재된 기증자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분류와 정리가 끝난 자료는 수장고 1, 2에 나눠 격납하였다. 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 또는 연구자 누구나 자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정리, 연구, 전시하는 과정에서 2007년 청계피복노조사 편찬위원회가 기획하고 안재성이 쓴 『청계, 내 청춘』에서 언급된 대부분 자료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청계노조 역사와 가치를 실물자료로써 재조명해 보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노동자 속으로 한 걸음씩’에서는 청계노조 설립 직후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태일 분신항거 직후 설립한 청계노조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합원 모집,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환경에서도 가장 열악한 시다 임금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진행했던 청계노조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2부 ‘부드러운 투쟁은 부러지지 않는다’에서는 강렬한 현장투쟁 이면에 교육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던 다양한 조합활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청계노조 평화시장 내 봉제 업체가 넓게 분포된 특징에 따라 소통과

화합의 방법을 고민했다. 노조 설립 초기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이카시회’소모임을 만들어 조합원을 확장해 나갔고, 새마을 노동교실을 통해 교육과 취미 활동을 함께 배워 나갔다. 사업과 활동은 다양한 소식지로 발행하여 많은 조합원이 함께하고자 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3부 ‘우리들의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조 선봉에서 노동연대의 기초를 형성했던 청계노조를 조명했다. 청계노조는 같은 지역과 업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화 운동에도 연대하여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투쟁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4부 ‘노동자 어머니 이소선’에서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이 아들 태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여 년 세월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소선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함께한 열네 분의 기억을 기록물로 재조명했다.

특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청계노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서술된 글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기록을 실물 자료로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재성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 글을 통해 70~80년대 한국노동운동 과정 중 민주노조 선봉에서 노동연대 기초를 형성하고, 투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계노조의 실제 자료를 소개하고자 했다. 이 글이 전태일, 이소선 그리고 청계노조 투쟁과 노력의 역사를 계승, 발전하여 그 가치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사 양윤미

목차

1부 노동자 속으로 한걸음씩

청계피복노동자부 설립과 함께 '교육선전활동'을 시작하다!	
노동조합 인식개선과 조합원 모집	10
청계피복노동자 결성과 조합원 모집	
'체불임금 받아드립니다.'	19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임금투쟁 활동	32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환경 얼마나 달라졌나요?	
시다 직불제(견습공 임금 직불제)	41

2부 부드러운 투쟁은 부러지지 않는다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소식지로 조합 활동을 알리다!	52
노동야학의 시초	
일하면서 배우자! '새마을노동교실' I	59
노동야학의 시초	
일하면서 배우자! '새마을노동교실' II	66
청계피복노동자의 기초를 형성하다.	
아카시아처럼 풍성하게 '아카시아회'	76

3부 우리들의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자대투쟁으로 가는 길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연대투쟁 I | 84 |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시련과 전환

1977년 9·9투쟁 | 100 |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연대투쟁 II | 113 |

청계노조 해산 그리고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 I | 121 |

청계노조 해산 그리고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 II | 136 |

4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이소선 10주기를 맞으며

이소선을 기록하다 | 156 |

이소선 10주기를 맞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어머니, 이소선 | 165 |

청계피복노동조합 연표 | 175 |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임금실태조사연월일 서기1975년3월25일 ~ 4월6일

조사지역 지부산하 292개 사업장

조사실태통계 서기1975년4월8일 ~ 4월29일

실태결과 1. 재단사의 경력및 임금통계

2. 직종별 월급공의 임금실태

3. 능률급 미성사의 임금실태

4. 제품별 임금단가및 최저임상화액

5. 전습공의 임금제도

6. 임금인상 조건

7. 직종별 평균임금실태

8. 임금단가제품별 인상과 현황

1부

노동자 속으로 한걸음씩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한 것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상담할 때 일한 기간과 못 받은 임금의 액수 등을 메모해서
사업주를 불러 상담 메모지를 놓고 체불임금 이야기를 하죠.”

청계피복노조정부 설립과 함께 '교육선전활동'을 시작하다! 노동조합 인식개선과 조합원 모집

1970년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는 설립과 동시에 일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발하는 교육 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겐 생소했고, 사용주의 악덕 선전으로 깡패집단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조의 목적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시급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결국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조합원으로서 함께 투쟁하는 것이었기에 청계피복노조는 설립과 동시에 '교육선전부'를 두어 노동자 의식 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평화시장 노동자 교육의 시작

초대 교육선전부장은 최종인이 맡았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의 필요성 강조와 인식 개선, 조합원 가입을 목적으로 한 기본 교육과 선전이 주된 활동이었다.

첫해 교육은 소수의 조합원을 비롯한 시장상가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해설', '클럽활동의 필요성', '부당노동

행위'등과 같이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했다.

1971년 2월 도시산업선교회 후원을 받아 이틀에 걸쳐 동대문 예식장과 카톨릭 노동청년회 강당을 빌려 일반 노동자를 포함한 조합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조합론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종로 CCK(한국기독교청년회) 강당을 빌려 시장상가 근로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해설과, 사권의 시간을 가지는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모집해 교육했는데, 같은 해 12월 23일~24일은 을지예식장 4층을 빌려 남자 재단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론을, 수도예식장에서는 평화시장 노동자 50명만 모집해 노동조합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했다. (그림 1)

교육이 증가하자 문제는 늘 장소였다. 교육 활동 회수가 늘어난 만큼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평화시장 인근 종로 또는 을지로의 예식장, 대학교 강당, 회관 등을 빌렸다. 다음의 문서는 을지로 6가에 위치한 서울음대 강당을 빌리기 위해 발송한 협조 요청 서류와, 요청이 수락되자 초청장을 만들어 배포하여 교육 대상을 모집한 기록이다. (그림 2, 3)

교육사업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졌다. 노조는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청 등의 후원으로 수많은 대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조합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나갔다. 그 노력은 1972년 4월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등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평화새마을교실'로

발전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교육교본으로 한국노총에서 발행한 교본을 채택해 일반교육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림 4. 5)

▶ 청계피복노조 간부 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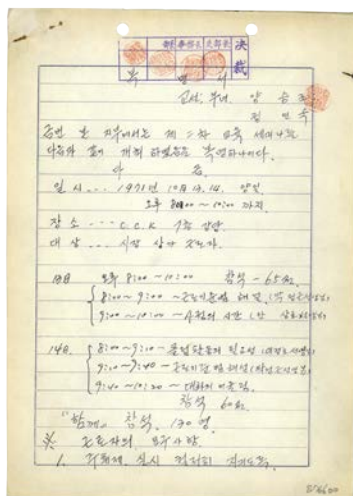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의 초기 교육 방향은 평화시장 노동자 전체가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여기면서도 간부 역량 강화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조합원을 계몽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조합 내부 지도자 양성 고급교육이 필요했다. 간부들은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이 강사를 맡아 진행하는 ‘크리스찬아카데미’ 또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그림 6) 서강대학교 산업 문제연구소 (그림 7) 에서 열리는 수개월 과정의 노동운동가 양성교육부터, 청소년 지도자, 여성 근로자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며 지도자 자질을 키워나갔다. (그림 8. 9)

아래의 기안문서는 처음으로 청계피복노조 간부들이 영등포 돈보스꼬 쉼타에서 <제1차 청계피복지부 간부 교육>을 다녀온 문서로 지부장, 사무장, 총무부장 등 조합 간부 대부분이 참여해, 회의 진행법, 인간관계론, 노동운동의 방향, 노동조합 간부 자세 등 노동조합을 알차게 전개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복명한 기록이다. (그림

10)

▶ 교육선전부의 계몽과 선전 활동

이외 초기 교육선전부는 교육과 함께 일반 노동자 계몽과 관련된 선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도 중요하게 여겼다. 노동조합의 목적과 가입 필요성을 알리는 일은 조합원 모집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합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던 노조설립 초기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청계천을 따라 사업장이 분산된 평화, 동화, 통일 상가에 각각 노동조합 소식판을 만들어 소식을 빠르게 알리는 데 활용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선전문을 제작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평화시장 영세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었다. [\(그림 11, 12\)](#)



1	1	1. <시장상가 노동자 대상 기본 교육 기안문서 및 참석자 명단> 1971.10.13~14, 전태일재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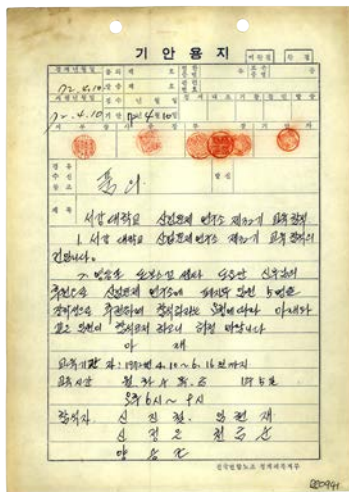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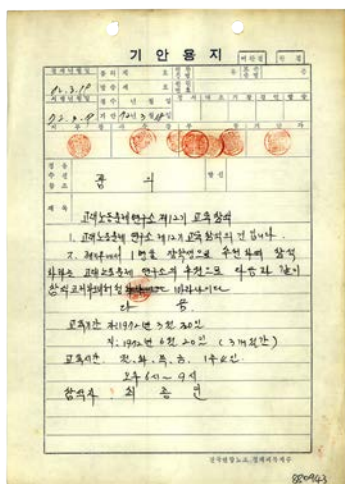
[illegible]

전국연합노동조합총재계곡직위	
현충실 제 1호	1970. 12. 28
수신 서울중앙대학장	
발송 서울과방	
제목 노동조합 수와 정리에 대한 협조 취의	
1. 삼척부에서는 현재 동원 및 동원식당 에 근무하는 재직노동조합 수를 20명으로 하고 의 원노동조합 수를 4개로 하고 있다. 원노동 조합 수를 4개로 하고 있다. 원노동조합 수를 4개 로 하고 있다. 원노동조합 수를 4개로 하고 있다. 2. 안하 내용 가. 발신 1970. 12. 27. 12시 15분 나. 발신지 원충실 제 1호 다. 발신지 원충실 제 1호 4. 원충실 제 1호 5. 원충실 제 1호 6. 원충실 제 1호 7. 원충실 제 1호 8. 원충실 제 1호 9. 원충실 제 1호 10. 원충실 제 1호 11. 원충실 제 1호 12. 원충실 제 1호 13. 원충실 제 1호 14. 원충실 제 1호 15. 원충실 제 1호 16. 원충실 제 1호 17. 원충실 제 1호 18. 원충실 제 1호 19. 원충실 제 1호 20. 원충실 제 1호 21. 원충실 제 1호 22. 원충실 제 1호 23. 원충실 제 1호 24. 원충실 제 1호 25. 원충실 제 1호 26. 원충실 제 1호 27. 원충실 제 1호 28. 원충실 제 1호 29. 원충실 제 1호 30. 원충실 제 1호 31. 원충실 제 1호 32. 원충실 제 1호 33. 원충실 제 1호 34. 원충실 제 1호 35. 원충실 제 1호 36. 원충실 제 1호 37. 원충실 제 1호 38. 원충실 제 1호 39. 원충실 제 1호 40. 원충실 제 1호 41. 원충실 제 1호 42. 원충실 제 1호 43. 원충실 제 1호 44. 원충실 제 1호 45. 원충실 제 1호 46. 원충실 제 1호 47. 원충실 제 1호 48. 원충실 제 1호 49. 원충실 제 1호 50. 원충실 제 1호 51. 원충실 제 1호 52. 원충실 제 1호 53. 원충실 제 1호 54. 원충실 제 1호 55. 원충실 제 1호 56. 원충실 제 1호 57. 원충실 제 1호 58. 원충실 제 1호 59. 원충실 제 1호 60. 원충실 제 1호 61. 원충실 제 1호 62. 원충실 제 1호 63. 원충실 제 1호 64. 원충실 제 1호 65. 원충실 제 1호 66. 원충실 제 1호 67. 원충실 제 1호 68. 원충실 제 1호 69. 원충실 제 1호 70. 원충실 제 1호 71. 원충실 제 1호 72. 원충실 제 1호 73. 원충실 제 1호 74. 원충실 제 1호 75. 원충실 제 1호 76. 원충실 제 1호 77. 원충실 제 1호 78. 원충실 제 1호 79. 원충실 제 1호 80. 원충실 제 1호 81. 원충실 제 1호 82. 원충실 제 1호 83. 원충실 제 1호 84. 원충실 제 1호 85. 원충실 제 1호 86. 원충실 제 1호 87. 원충실 제 1호 88. 원충실 제 1호 89. 원충실 제 1호 90. 원충실 제 1호 91. 원충실 제 1호 92. 원충실 제 1호 93. 원충실 제 1호 94. 원충실 제 1호 95. 원충실 제 1호 96. 원충실 제 1호 97. 원충실 제 1호 98. 원충실 제 1호 99. 원충실 제 1호 100. 원충실 제 1호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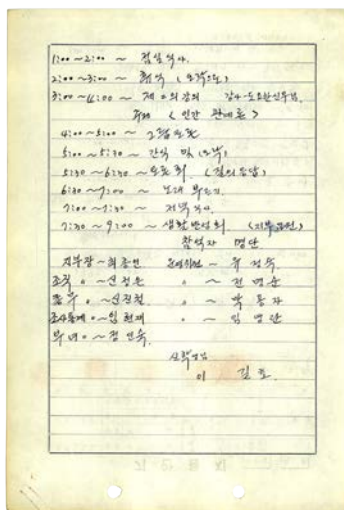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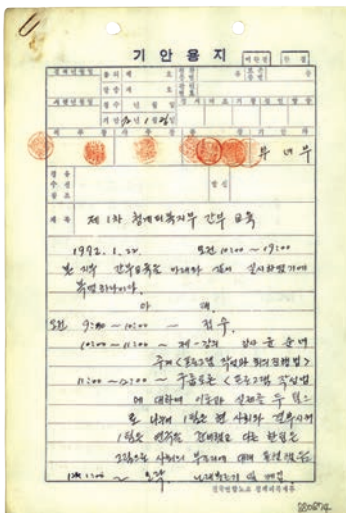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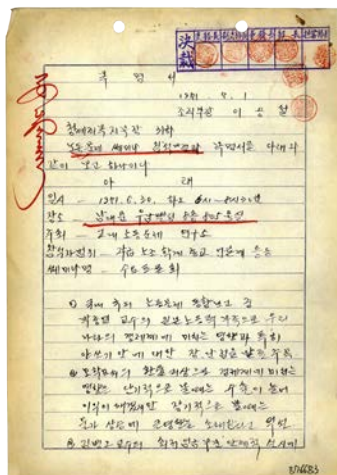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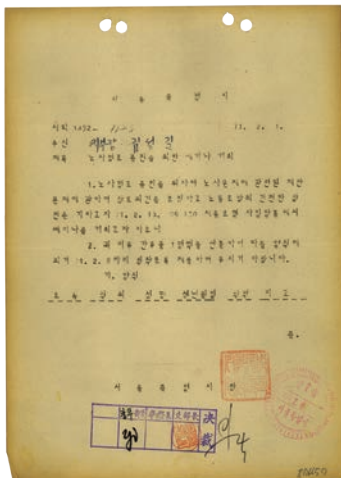
2	2
3	4

2. <노동교육강좌 개최에 대한 장소 협조 의뢰 기안문>, 1970.12.28, 전태일재단
3. <노동교육 강좌 초청장>, 1970.12.29, 전태일재단
4. <노동교육교본 사용 요청 기안문> 1971, 전태일재단



5	
6	7

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발간 노동교육교본(1)>, 1968, 전태일재단
6.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제12기 교육참석 기안문>, 1972, 전태일재단
7.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제32기 교육참석 기안문>, 1972, 전태일재단



8	9
10	10

8. <노사협조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71, 전태일재단
9. <노동문제 세미나 수요토론회 참석 결과 보고서>, 1971, 전태일재단
10. <제1차 청계피복지부 간부교육>, 1972, 전태일재단

(1)

여러분이 고민일수록요! 일제하의 계층별 배우와 노동자가 그
 하고 이 계층별 노동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취학금, 가족과 함께
 지난날의 저 축은 중시 더 존중된 최후를 안수있게 하고 더
 해를지 저자를 격정있게 요구시켜서 일할만큼 그 그것보다 더
 낮은 생활을 당할만큼 있게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씩, 공장을
 우리들한테 직접으로 알도록 한다 그 여러분은 자식과 자손
 성취 취업을 보장할수록 있게 될까?

※ 너와 나의 단결로
우리들의 권익 찾자!

※ 전전한 노사협조
이룩되는 생활안정!

프랑스원 저필

1.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2. 글씨를 단정하십시오
3. 말씨를 권정하십시오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회복 지부
(경화시장 옥살)

여러분은 왜 노동 조합에
가입 하여야 하는가?

1. 여러분은 노동자로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우선 여러분은 물론 환경과관련 글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적당히 적는다. 그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
을 하도록 있도록 도와 시도를 했었다. 여러분은 생활수준의
향상을위해교육을과 시달라게 해줘서 수고를 했었다.

- ## 2.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노충효에게 거둬들이고 그 제자와 관용에
적극 참가하여 노충효같이 여러분의 학포를 성취하도록 열망하
야만 한다.

- ### 3. 노동조합란 무엇인가?

출판원 (노동자=근로자) 등의 공중이용을 위하여 고지, 표지하여
일부나 그중의 일부를 설치하는 것인 것이다.

※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성하여
근로 고충의 해결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 4. 노동조합의 기능은 무엇인가?

노승효장은 허적문의 고종수 앞에서 허적문과 허적문의 장로
를 대표한다 허적문의 대항자로서 고종수와 계약을 교섭하며
허적문이 있을 허적일 조건을 제시한다. 이조건에는 허적문이
반대할 필요 노승효장을 허적해서 독립, 국가의 기간, 커다란

883232

[illegible]

11

12

11. <노동조합 가입 독려 유인물>, 1971, 전태일재단
12. <계몽 선전문 인쇄,배부 기안문>, 1971, 전태일재단

청계피복노조 결성과 조합원 모집 '체불임금 받아드립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행거 이후 장례를 마친 삼동회 친구들은 곧장 태일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전국연합노동조합의 청계피복지부 설립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시장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은 최종인은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노동청장에게 평화시장 근로 개선 8개 요구조항과 평화시장 내 노조사무실 설립을 약속받았다. ^(그림 1)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노동청과 사측은 비협조적이었고, 약속한 사무실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사측과 노동청의 횡방에도 노조를 설립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어머니의 간절한 노력으로 노조사무실을 확보, 청계피복노조지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노조 설립이 본격화되어서도, 전태일의 죽음으로 당시 노동환경의 민낯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과 쟁점이 되었던 만큼 외부에서 이권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한 혼돈과 노조 인식 부족으로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난항이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조의 결성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최종인, 이승철 등 친구들 각자가 역할을 나눠

빠르게 움직인 덕분으로, 전태일 분신항거 이후 14일 만인 11월 27일 노조 결성식이 이뤄진다.

마침내 1970년 11월 27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의원대회는 준비위원장인 최종인을 중심으로 이승철 등 친구들이 돕는 가운데 사용주 편에 선 몇몇 원로선배들을 저지하고 김성길을 지부장으로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하였다. 지부 설립 당시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친구들은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노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초대 지부장만큼은 한국노총 출신 김성길에게 맡겼다. [\(그림 2, 3\)](#)

노동운동의 새로운 서막은 열렸지만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인식 부족과 저조한 참여, 사업주의 악덕 선전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설립 초기 부지부장을 맡은 임현재와 친구들은 조합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라면을 죽처럼 끓여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청계피복지부는 근로조건 개선, 주휴제 실시, 체불임금 해결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시급한 사업이었던 조합원 모집과 노동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한 것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찾아오면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3개월치 조합비도 받았어요. 조합비를 내야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상담할 때 일한 기간과 못 받은 임금의 액수 등을 메모해서 사업주를 불러 상담 메모지를 놓고 체불임금 이야기를 하죠 ... 아주 악질들은 돈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은 노동청에 가서 노동조합 이름으로 진정을 넣어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장실로 간다든지 ...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과 많은 금액의 임금을 해결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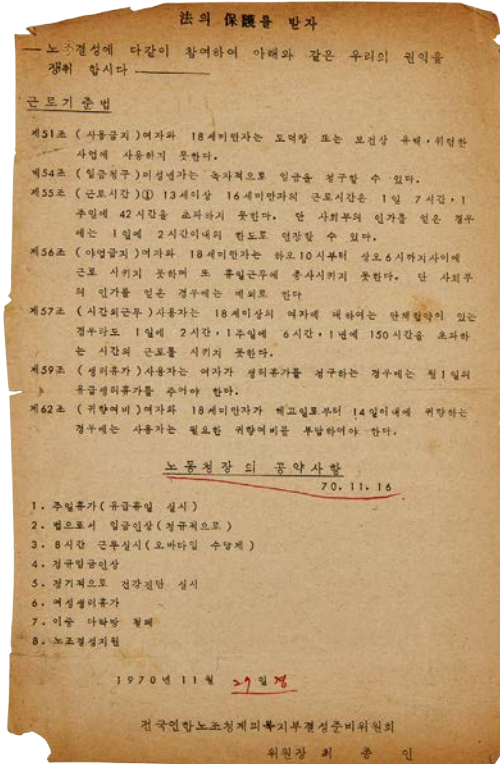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태일의 친구들-2020 전태일 노동구술 기록 I』, 2020, pp. 431~432.

이처럼 초창기 노조 사업 중 법규활동으로 분류된 체불임금 처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첫째 성과는 지급율 76%로, 공장폐쇄, 진정한 연락 두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체로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그림 4)

더불어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업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는 주휴제 실시 및 야간작업 위반 업체 조사 적발이었다. 위반 해당 사용자는 다음날 지부 사무실로 내방시켜 가산 수당을 지급케 하고, 노사협의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여 시정하게 했다. (그림 5)

이러한 노력으로 노조라는 인식조차 없던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2년 만에 7800명이나 가입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수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불량집단이라는 이미지 또한 개선하게 되었다.



1. 노동청장 공약사항 안내 및 노조결성으로
권익 쟁취를 다짐하는 안내문, 1970.11, 전태일기념관



1) 주일 휴가(주휴제) 실시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당시 시장상가들은 비수기인 1~2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달에 하루만 쉬었으며 이마저도 성수기에는 지키지 않았다.



2) 법으로 정한 정기 임금 인상

4) 정규 임금 인상

☞ 당시의 임금 책정과 지금은 오로지 사업주의 판단에만 의지해 지급 일시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임금 수준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당시의 임금은 각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양으로 계산했다. 단가를 인상한다면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단가는 사용주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다.



3) 8시간 근로제 실시(시간 외 수당제)

제42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당시 평화시장 상가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성수기에는 오후 12시를 넘겨 밤을 새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제71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

☞ 전태일이 요구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사용자들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가짜로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았다.



6) 여성 생리 휴가

제59조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당시 평화시장 상가 근로자 80%가 여성이었으며, 그 중 60%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다. 생리휴가는 매우 파격적인 요구처럼 여겨지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였다.



7) 이중 다락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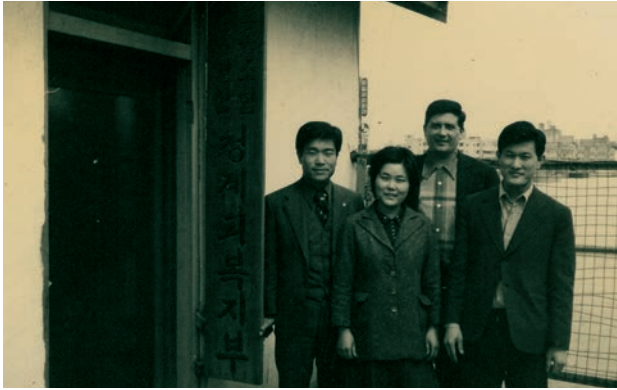
제64조 사용자는 작업상 위험하거나 보건적으로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당시 경화시장 상가들은 창문도 없는 데다 좁고 낮은 공간을 1층과 2층으로 나눈 다락구조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당시 경화시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다수가 시력 감퇴, 호흡기질환, 소화불량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다.



8) 노조 결성 지원

- ☞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사업주와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 | | |
|---|---|
| 2 | 2. (왼쪽부터)정기대의원대회에 청계노조 김성길, 연합노조 최일호, 당시 법대생 이영희가 참석, 1971, 이승철 |
|---|---|
- | | |
|---|---|
| 3 | 3. (왼쪽부터)임현재, 정인숙, 도요한 신부, 이승철 청계피복지부 사무실 현판 앞에서, 1971, 이승철 |
|---|---|

1. 개 요

[illegible]

철학자의 책과 대개 조소이준배 작화법회의
출판. 삼비의문자철의 화법과 삼비후생의삼
의 철학자인이 1대조소인 사립장이있은 것
이고 중립원의 해법삼삼 세피야또한 중요한
변화법회의 비자를 작화법회의

특위 제정안을 국회에 있어서 근엄근엄 법의
최종 사업장인 경우 일차적 사업장 폐쇄등으
로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안의
가운데 여기 지적할 수 없지 않다.

진정 사학 취지

1. 총인정전수 93 건에 대해 해산금액 1,863,660원
2. 해산 71 건에 금액 1,215,300 원을 인정한
이 수의조항 있다.

c. 미해결 22 건에 금액 890.360 원이 된다.

여해장이요 ① 1권 322, 460 원은 공장폐쇄

⑤ 5천 196.240 원은 전쟁인원

의 불가동

④ 11월 29일 110 원은 조경가

법률경제의 사업체로서 경제

조지 부가봉

노사분규처리

- 가. 1월 23일 당 249호 회무사 (내로 250호)
 내로 251호로 조항한 1월 23일 1980년 조
 항에 가입한 사람과 신원조사 결과 없었고, 또
 명제를 판다고 지시했다. 전정희와 국지 서
 용지방 2명에게만 국지신원조사 결과 전정
 서장우의 전정희가 동계에서 동맹을 맺고자
 가려고 ① 신원조사를 받고 있다. ② 조항
 할을 보강한다. ③ 전정희를 해직시켰
 는데도 국지서방을 해직시키지 않았고
- 나. 1월 24일 명보사 (내로 252호)에
 임명된 조항을 판다고 지시하고 명보사

연월	신장	평지	동평	동진	신평	동진	동진	동진	동진	동진	동진	동진	동진
1월: 1월 ~ 1월	18	18	7	9	14	11	18	18	18	18	18	18	18
2월: 2월 ~ 2월	12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3월: 3월 ~ 3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4월: 4월 ~ 4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5월: 5월 ~ 5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6월: 6월 ~ 6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7월: 7월 ~ 7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8월: 8월 ~ 8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9월: 9월 ~ 9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10월: 10월 ~ 10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11월: 11월 ~ 11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12월: 12월 ~ 12월	9	9	11	12	9	6	12	12	12	12	12	12	12

- 나. 사전 작업 위한 단체 조사 사업 기법
 자부 일주일 전부터 73년 1월 20 일과 20년 3월 20일
 일요일은 총 10시간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이르기까지
 작업 시간 일부를 조사 작업하고 이튿날 해당 지역의 전
 해를 지역 사무실에 내밀기까지 기간 수업을 자금을 하고 시장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피어라나.

* 아산 직업 관련 업체 명단

시상별 모집년월	평회	동회	동일	동성	신원회	동문	부원	교사	기타	계
79. 1. 10	2	6	4	2	5	11	4	13	13	60
79. 3. 24	4	3	5	3	2	1	3	7	13	46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임금투쟁 활동

▶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임금투쟁 배경

1970년 초 평화시장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매년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노동자 최저 생계비는 물론 타 제조업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973년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도시 근로자 한달 가계 소비 지출액은 42,930원으로, 73년도 물가상승률은 15.1%에 74년도 1~2월 물가상승률만 해도 22.1%였다. 74년 평균 40%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3년 동안 평화시장 노동자의 임금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974년 1월 청계피복노동조합은 평화시장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실질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투쟁을 시작했다.

▶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의 시작 ‘임금실태 조사’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1974년 1월 31일 발족과 동시에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평화·동화·통일·동신 상가에 종사하는 부문별, 직종별 146업체 1196명을 대상으로 24명의 조사원이 시장상가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했다. 그동안 노조에서도 몇 차례 임금실태 조사를 해왔지만 단순히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반면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직종·부문별 근무시간과 임금 등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타 제조 수출업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림 2, 3, 4) 그 결과 같은 해 3월 19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율 37.2%를 결정하고, 각 사업주에게 임금인상 요청 유인물을 발송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시다(견습공) 임금에 관해서는 최저 7,000원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직접 지급 할 것을 권고했다. (그림 5)

▶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과 난항

1974년은 임금투쟁의 원년으로 평화시장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 공동으로 임금인상을 권유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75년은 가파른 물가상승에 비해 더딘 조정과 기능공과 보조공들의 최저 임금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활동을 준비한 해였다.

1975년은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재정비는 물론 청계피복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임금실태 조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일부 사업장에서 평균 10.4% 임금인상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금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는 전년도 인상 요구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43.8% 인상률을 토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정 결정을 받도록 추진 후 개별 사업주를 상대로 인상 이행을 교섭하기 위해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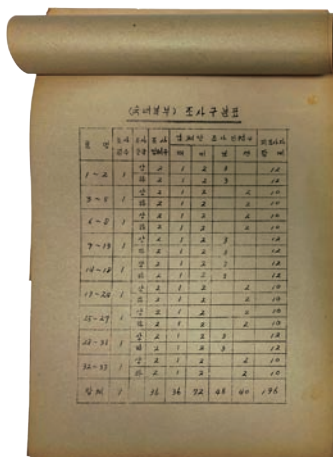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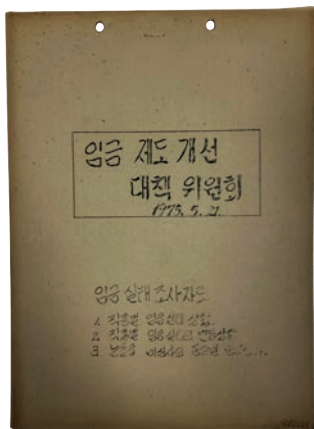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사협의회’에서는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1975년 5월 23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인상률을 책정하고, 임금인상 권유 유인물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며칠 지나지 않은 26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1500부 인쇄 배포되었다. 사용주의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되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광진복장의 미싱사 10명이 와이셔츠 1매 공임을 35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할 것과 퇴사사 퇴직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주는 임금인상 거부는 물론 근로자를 자동퇴사 처리까지 했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노조 지부가 적극 개입하여 교섭했다. (그림 6) 이후 서약서를 작성 이행토록 합의하였는데, (그림 7) 여기에는 시장상가 전 와이셔츠 업체 공임을 인상 조정케 하고, 미싱사가 지불해온 시다 임금을 고용주가 직접 지불케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시다 직불제 투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8, 9)

▶ 74~75년 평화시장 임금인상 활동의 성과와 끝없는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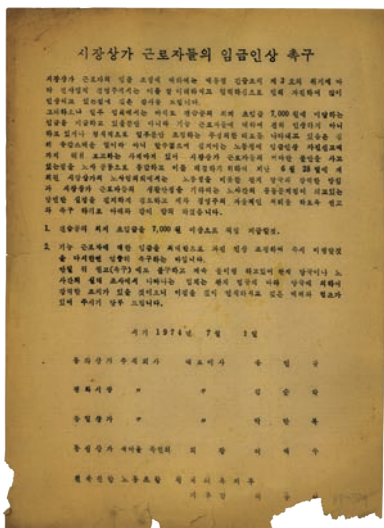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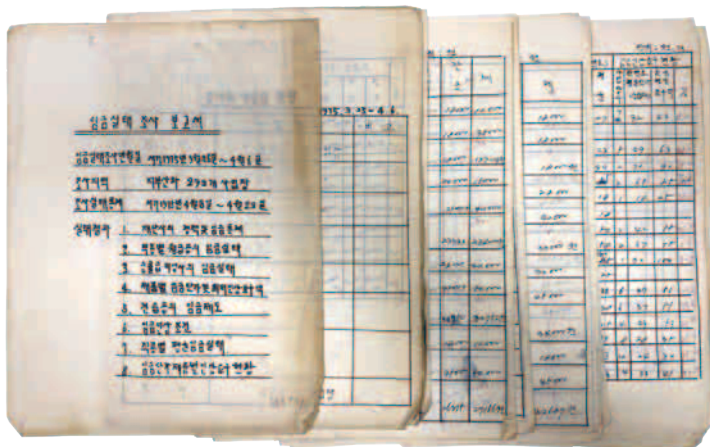
1974년 평화시장 임금인상 투쟁은, 평화시장 내 흩어져 있는 600여개가 넘는 사업장마다 제각각 다르게 경영관리 되고 있던 노동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명확한 임금실태 자료를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1970년 초반 평화시장의 임금 수준은 타 제조업은 물론 물가상승에 비례한 임금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체계적 조사는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사용주들에게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시다 임금을 74년 3월 최저 임금 7,000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단체협약 갱신 체결시 노사협의회에서 8,000원 이상 보장과 고용주 직불제 합의를 끌어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림 10)

이후 1976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협정 체결을 이뤄냈지만 임금인상 개선은 물가상승에 비례해 더디게 조정되었고, 사용주들은 노사간 합의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인상 투쟁은 80년, 90년대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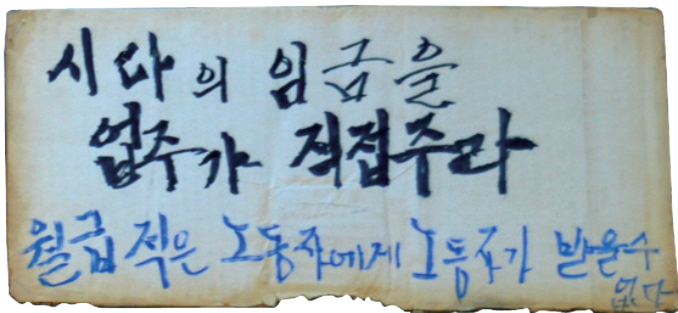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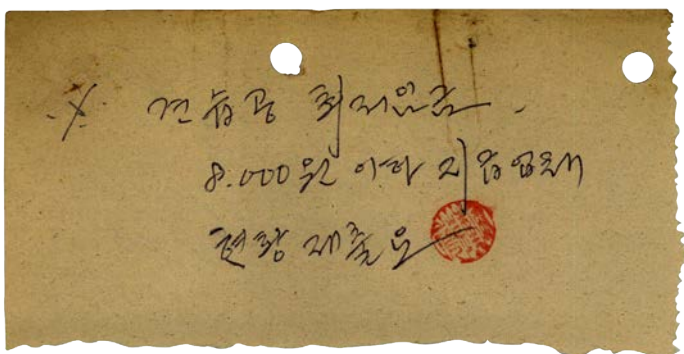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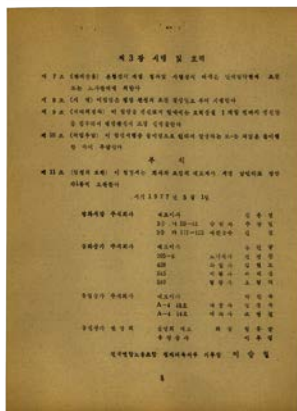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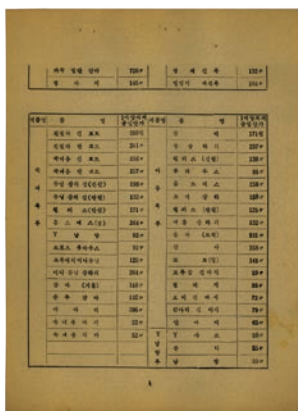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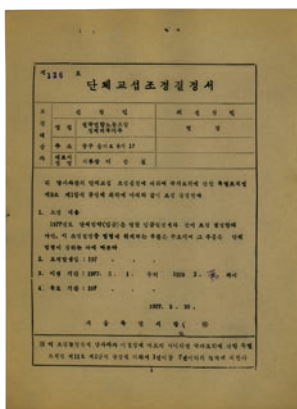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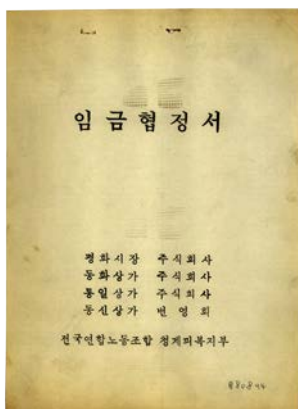
4.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초안>, 1975, 전태일재단
5. <시장상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촉구>, 1974.7, 전태일재단



8
9

8. <임금인상 실태 조사 품의 중>, 1976, 전태일재단

9. 임금인상 시위 피켓, 1970년대, 전태일기념관



10	10
10	10

10. 평화시장 시장상가와 청계피복노조 <임금 협정서>, 1977.5, 전태일재단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환경 얼마나 달라졌나요?

시다 직불제(견습공 임금 직불제)

▶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임금실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 문제였다. 19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년 기록적인 물가 인상이 계속되던 시절이었지만 평화시장 노동자들(재단사~시다)의 평균 임금은 월 20,375원(하루평균 12.7시간 기준)이었다. 이는 당시 전국섬유노동조합에서 조사한 5인 가족 기준 평균 생계비 72,522원에 30% 정도에 겨우 근접하는 저임금이었고, 경제기획원 발표 도시근로자 생계 지출액 5인 가족 기준 65,000원(3.1인 월 40,300원)에 대비해도 50% 정도로 최저 생계비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었다.

평화시장 노동자의 부양가족 수는 평균 3명으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재단사도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월 49,326원을 받았다. 이러한 임금 문제는 시다에게는 더욱 가혹했는데, 하루 평균 12시간씩 한 달 꼬박 일해도 8,000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 시다 임금 제도의 문제점

시다(견습공)는 사용주가 고용하지만 사용주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한 미싱사의 임금을 능률급으로 제도화한 후 시다의 임금을 미싱사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시다는 취업 후 약 2~3년 동안의 견습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 기술을 배우는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2,157원 (노동시간 12.7시간 기준)을 받고 일하게 했다. 이를 8시간으로 가정하면 월 7,576원으로, 이마저 사용주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 시다의 1년 평균 임금은 더욱더 적어져 교통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추석 및 구정 전후 또는 여름철 비수기 2~3개월 동안 미싱사가 월급을 받지 못할 때는 시다도 월급을 받지 못해 1년에 7~8개월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다의 수는 전체 3,773명 중 1,430여명으로 38%나 되었다.

▶ 시다 직불제를 위한 노력과 결실

1975년 평화시장 내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대책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청계피복노조 지부는 시다의 임금부터 챙겼다. 같은 해 5월 노조는 각 사업장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통계를 기반으로 시다 월급이 8,000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 임금 8,000원 지급 촉구와 사용주 직불제도가 조정

사항임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보내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그림 2, 3)

이때, 동아시장 광진복장사(와이셔츠 업체)에서 미싱사의 공임비 인상, 퇴직금 지급과 함께 시다 직불제를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투쟁은 1년여 동안 노조 간부와 사업주의 긴 호흡 끝에 요구안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특히 시다 임금을 직불하도록 한 조항은 1976년 전 품목(점퍼, 아동복, 숙녀복 등) 공장에서 시다 임금을 사장이 직접 지급하게 하는 시다 직불제 투쟁의 근거가 되었다.

이후 1976년 3월 6일 점퍼제작 공장 미싱사들이 사장에게 시다 임금 직불제를 요구하면서 임금제도 개선 투쟁은 이어졌다. 점퍼제작 공장 사장들은 미싱사에게 공임을 더 올려 줄 테니 시다 임금은 기존대로 지급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우리 공장은 잠바를 만드는데 시다 직불제를 안하여서 우리 공장에 있는 미싱사들끼리 의논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장님과 의논을 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야기를 했으나 사장님은 작년에 200원 짜리 공임은 220원, 230원 공임은 250원으로 각각 올려 줄테니 시다임금은 우리 미싱사들한테 주라는 것이다. 우리 미싱사들은 작년 공임에다 시다 직불제로 해달라고 다 같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러면 올린 공임에서 25%를 삭감하고 직불제로 해 주겠다는 것이다. 올린 공임에서 25%를 삭감하면 220짜리 공임은 55원, 250원 짜리 공임은 62원50전을 올린 공임에서 빼게되는 것이고 빼게되면 165원과 180원50전으로 되면 작년 공임보다 35원과 42원50전이 각각 깎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었다. 마침 그때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비를 받으러 왔다. 사장님은 큰 소리로 그런식으로 시다 직불제를 해줄테니까 일을 하라면서 나간다. (중략) 노조 간부가 사장한테 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작년 공임에다 시다 직불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의된 거니까...”

『아카시아(통권2권)』,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1977, pp. 28~29.

...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을 다루는 일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임금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건설 임금 사용자 직접지급』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 익힌 그말 말을 많이 했던만큼 수난도 많았고 또 우롱도 많이 당했다. 작년 3월 26일 사건 이후 긴급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아직도 일부 집을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략) 달라진 거라고는 근방 눈에 띄는 오후 8시 이후 작업 종료, 주휴제 등도 완전하게 지켜지지도 않지만 사장님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출근부, 취업 동의서 등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갖춘 집에서도 사실대로 기재하지를 않고 건설 임금이 직불이 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있는 임금 통상법에 어긋나는 일임에도 알게 모르게 주인측에 서서 무간해 오기를 수날이 지나지 않았는가 ...”

『아카시아(통권2권)』 「- 시다 직불제에 대하여(어느 잠바공장 미싱사)-」, 1977, pp. 22~23.

점퍼 공장 직불제 요구는 14일 동안 25개 공장으로 번져나갔다. 일선 조합원들은 가두 시위를 준비했다. 시위는 무산되었지만 많은 노동자의 분노에 노동청장은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점퍼 공장 사장들은 시다 직불제에 합의했다. ‘시다 직불제’ 합의 사항에 대해 노조는 즉각적 시행을 요구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에는 시행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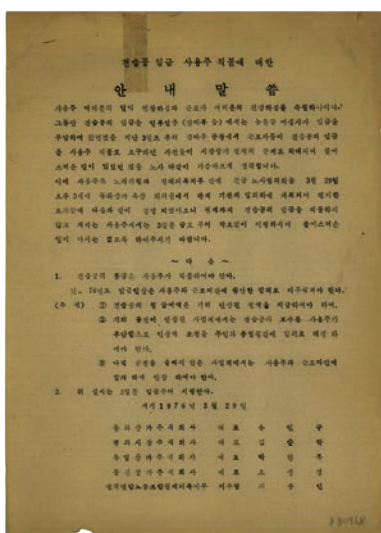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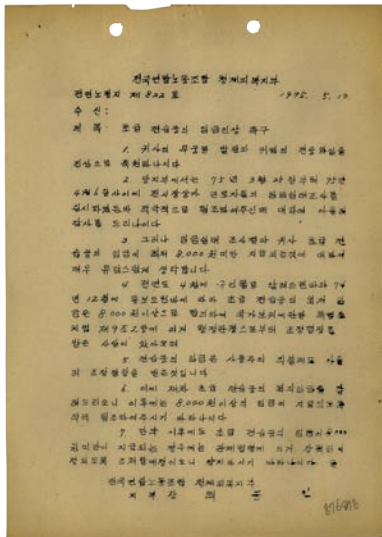
‘시다 직불제’로 불렸던 건설공 임금 직불제 시행은 노조와 조합원의 승리로, 노조의 위상과 활기는 더욱 커졌다. 노조는 시다 직불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감시했으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그림 5\)](#) 이 모든 노력은 1977년 4월 단체협약에서 유니언숍 제도화와 함께 ‘시다 최저 임금 2만원과 더불어 시다 임금은 사용주가 직불한다’는 조항이 조인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

1. 1970년대 다락방 봉제공장 미싱사와 시다, 청계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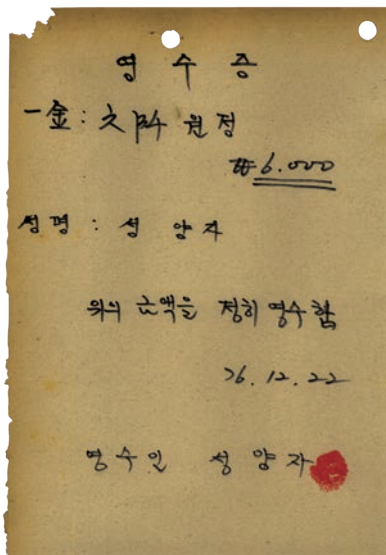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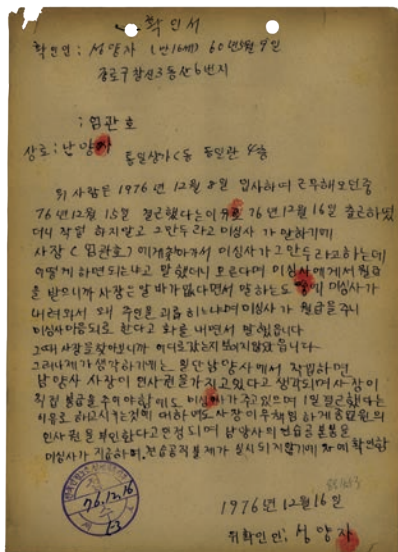


- 3

4

3. 견습공 최저 임금 지급 촉구 공문, 1975.5, 전태일재단
- 4

4. 견습공 임금 사용주의 직불에 대한 안내 말씀, 1976.3.29, 전태일재단



5	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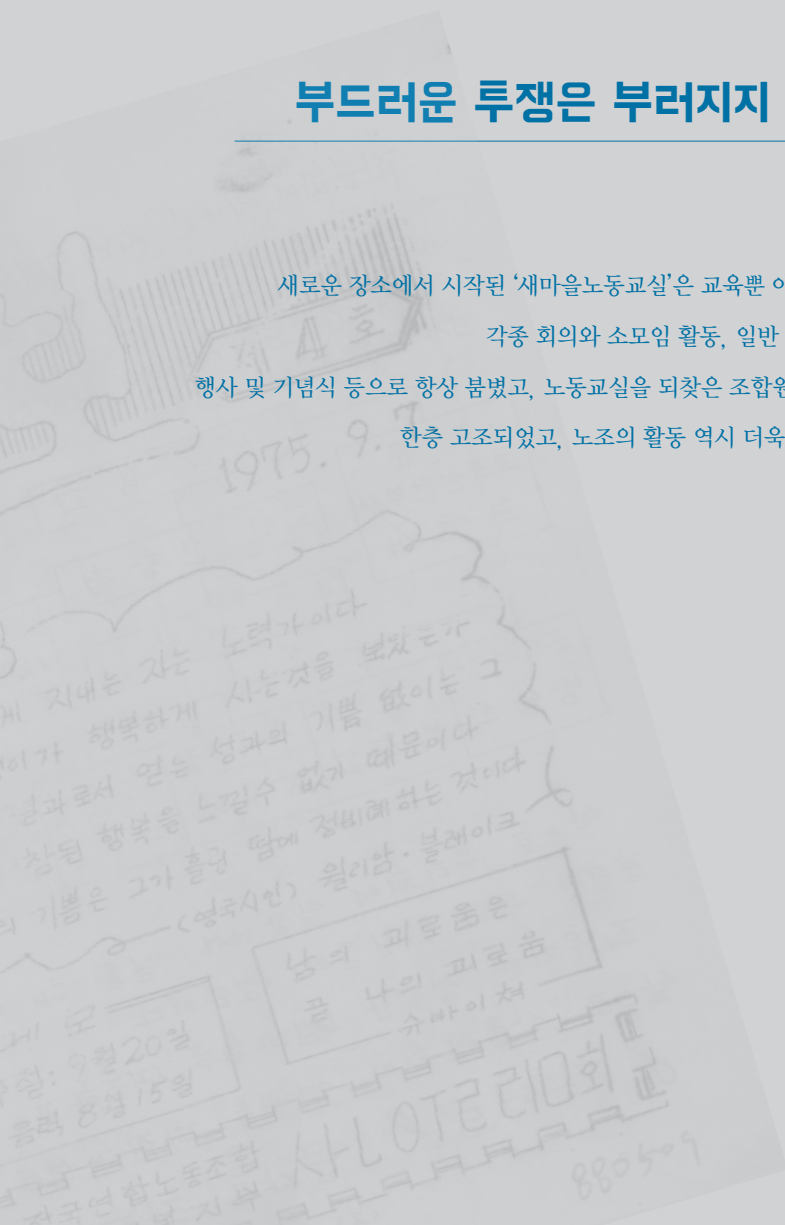
5. 남양사 견습공 직불제 위반서 및 임금 영수증, 1976.12, 전태일재단



2부

부드러운 투쟁은 부러지지 않는다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된 '새마을노동교실'은 교육뿐 아니라 조합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 활동, 일반 조합원 회합, 행사 및 기념식 등으로 항상 붐볐고, 노동교실을 되찾은 조합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되었고, 노조의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소식지로 조합 활동을 알리다!

▶ 청계피복노조 최초 소식지

청계피복노조 최초 기관지는 1973년 1월 10일 발간한 ‘청계피복 노보’로 같은 해 2월 20일 2호가 연이어 발간되었다. 기관지는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발행되었으며, 평화시장 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다.

제1호 노보 전면 기사는 1973년 조합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교육과 만남의 공간 ‘새마을노동교실’ 설립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소식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더불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력과 부녀부 여성 근로자 위안잔치, 소모임 아카시아회 클럽 활동과 현황 보고, 노동조합 의식화 내용을 담고 있어 초기 청계피복노조 활동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해 2월 20일 발행된 제2회 노보 역시 청계노조 설립 초기 중점 사업인 주휴제 위반 업체 단속과 새마을 노동교실 설립 추진 현황을 전면에 담고 있어 1970년대 사업보고서에 기록된 사업의 실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그림 1.2)

▶ 청계피복노동조합 소식지

청계피복노보에 이어 1974년 1월 30일 ‘청계노조소식지’가 발행됐다.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노동조합 활동 및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보가 소식지로 개편됐다. 소식지 제1호가 발간된 1974년은 노조의 일상 사업이 자리를 잡아 더욱 활발해졌던 시기이며, 임금인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71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이후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화시장 내 임금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인상에 대한 노력을 본격화한 노조의 활동 내용을 소식지에 잘 담아냈다. 견습공(시다) 최저 임금 6,000원을 최초 협의한 것에 이어, 1일 8시간 이외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제와 여성 연소근로자 심야 작업(밤 10시~새벽 6시까지) 금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안 체결을 전면 기사에 실어 기쁜 소식을 조합원에게 알렸다. [\(그림 3\)](#)

▶ 청계피복노동조합 소모임 소식지

청계 피복노동조합 산하 소모임 소식지 또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첫 소식지는 노조 설립 초기 평화시장 내 여성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아카시아회에서 발간했다. 1971년 시작된 아카시아회는 ‘아카시아’라는 명칭으로 회보, 회지를 만들어 소식을 전했다. 여성 소모임을 대표하는 아카시아 소식지는 비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시, 소설, 일기 등 문학작품이나 때론 당시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그림 4)

1970년 중반에는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내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 소모임 산울림이 생겨났고, 소식지도 발간됐다. 회보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독후감, 시, 행사 등의 내용을 싣고 있어 당시 소모임의 활발한 활동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

청계피복노동조합 산하 모임 동화상가 중심의 동화모임 역시 노동자 복지 실태와 처우에 대해 지적하고, 동화모임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를 발간했다. 이외 동종 직종 또는 취미활동으로 결성된 다양한 소모임에서도 회보를 만들어 회원들의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당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좌담회, 회원 소식 등을 비정기적으로 알렸다. (그림 6, 7)

이런 소식지 활동은 1990년대에도 이어졌다. 90년대의 대인복 객공 회보에는 평화시장 내 객공 미싱사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친목을 다지고자 한 노력이 담겨 있다. 또한 70~80년대 활발하게 활동한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이 90년대 들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창단한 청계동우회도 소식지를 만들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림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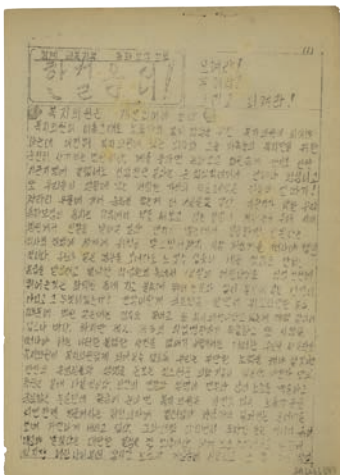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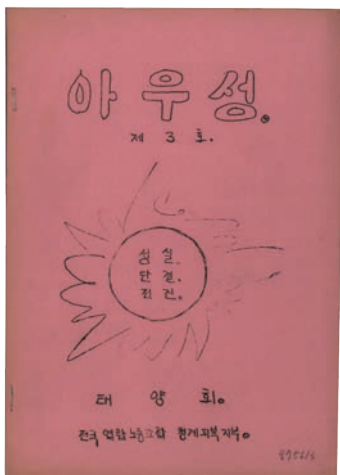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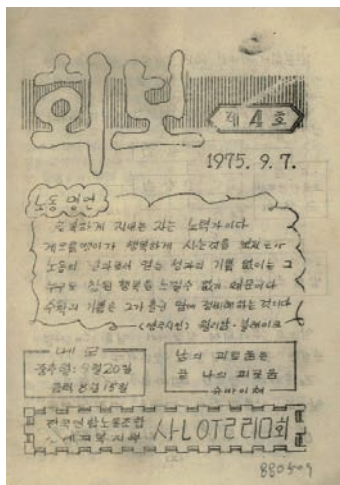
1	1
2	2

1. 청계피복노보 제1호, 1973.1, 전태일기념관
2. 청계피복노보 제2호, 1973.2, 전태일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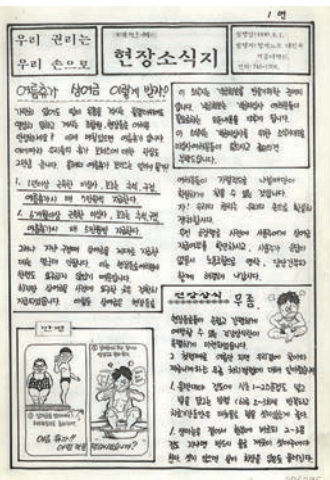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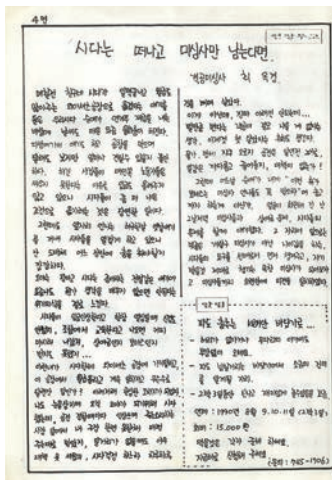
3	3
---	---

3. 청계적복노소지식 제1호, 1974.1, 전태일기념관



4	5
6	7

4. 청계피복노동조합 아카시아회 통권2호, 1977, 전태일재단
5. 청계피복노동조합 산울림회보 제4호, 1975.12, 전태일재단
6. 청계피복노동조합 태양회 소식지 '아우성' 제3호, 1977, 전태일재단
7. 청계피복노동조합 동화모임 교육부 소식지, 1979, 전태일재단



- 8

9

8. 청계피복노동조합 대인복 현장 소식지, 1990.8, 전태일재단

9. 청계피복노동조합 청계동우회 창간호, 1994.3, 전태일기념관

노동야학의 시초

일하면서 배우자! '새마을노동교실' 1

▶ 노동야학의 시작

‘노동야학’이란 명칭은 1907년 마산노동야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천성호, 2009, 78쪽). 당시 노동야학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민중 계몽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농민, 노동자 등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생계 활동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대한제국 시기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은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생계로 보통교육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모두를 계몽할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다. 사람의 도리와 자격, 근검절약, 애국 등의 내용을 담은 한글전용 책으로 글과 그림이 혼용되어 민중이 이해하기 쉽게 저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1930년대 조선어학회에서 교사를 위한 <계몽야학회 연문 교수 지침>이 발간되는 등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민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해방 이전 이뤄진 노동야학은 노동자, 농민 등을 폭넓게 포함한 계몽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이후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가속화된 산업화로 노동자의 증가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각종 산업재해, 민족 차별 등이 발생했고, 1920년 노동 공제회 결성과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으로 노동쟁의가 시작되면서 노동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만을 위한 교육은 청계피복노조 지부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활동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 노동자를 위한 ‘노동야학’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는 80%가 여성 노동자였으며, 그 중 40% 이상이 연소 노동자로, 이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을 위한 청계피복노조의 교육은 노동자 스스로가 사용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인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노조 지부는 YWCA 대학생연합회 봉사활동 지원을 받아 여성 노동자의 야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1972년 평화시장 인근 피복제품 공장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제1기 ‘평화새마을교실’이었다. 1972년 5월 22일에 시작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지부 사무실에서 교육할 계획이었다. 모집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7평 남짓한 교육 장소의 문제와 부득이 더운 여름인 것을 감안하여 응모자 200여명 가운데 결국 30명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과목은 중등 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공민 등 7과목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이뤄졌다. 일하면서 배우는 노동자들을 위해 저녁 8시에 시작되는 교육이었음에도 당시 야간작업으로 많은 이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서, 1972년 8월 31일 제1기 수료식은 17명만으로

진행됐다. (그림 3) 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2기 수강생은 모집되었고, 같은 해 10월 수강인원 22명을 모집하여 ‘노동조합’ 과목을 포함한 6과목을 중심으로 YWCA 대학생 봉사반이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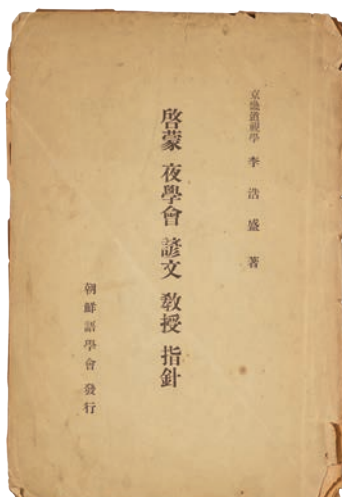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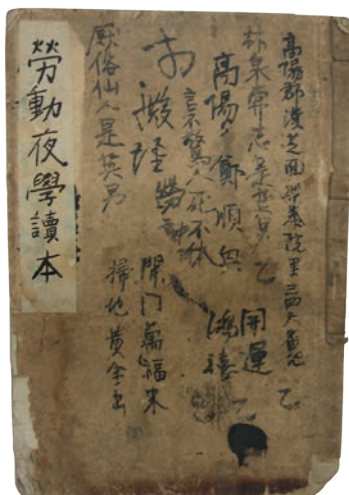
▶ 노동자를 위한 ‘새마을노동교실’ 개관과 수난

‘평화새마을교실’은 7평 남짓한 지부 사무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강 희망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때마침 1972년 9월 15일 정인숙 부녀부장이 모범 근로여성으로 청와대 모임에 초대되어 영부인 육영수 여사에게 교실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노동청의 지원과 사용주의 협찬으로 1972년 10월 13일 새마을노동교실 설립 추진 위원회가 꾸려졌다. 가을부터 시작된 ‘청계피복 새마을노동교실(가칭)’ 건립 계획은 사용주의 협찬으로, 목표한 설립기금 350만원 가운데 258만원을 모으는 데까지 진행됐다. 기금을 기반으로 다음 해 1973년 5월 동화시장 옥상의 50평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고, 시설과 자재는 아세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이하 아프리, AAFLI)에서 지원받아 노동교실을 마련했다. (그림 4, 5, 6)

그러나 기쁨도 잠시 5월 21일 개관식에 민주 인사 함석헌(1901~1989)을 초대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사용주는 노동교실 운영권을 빼앗아버렸다. 운영권을 빼앗은 사용주는 ‘시장상가 새마을 근로자 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주 중심의 위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과정 역시 검정고시 위주 교육만 진행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 운영을 시작했다. 노조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교실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노동청과 사용주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노조의 개선 요청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자 노조 조합원 250여명은 동화상가 옥상 노동교실에 모여 운영개선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농성은 7시간 만에 해산조치가 이루어졌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노조가 노동교실 운영권을 인수받게 되었다.

1975년 3월 11월 운영권을 인수받은 노조는 노동교실 운영의 정상화와 체계 확립을 위해 자립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노동교실을 이전하였다. (그림 7, 8) 새로운 노동교실로 유림빌딩 3~4층을 임대하여 발전적인 교육시설을 마련한 것이었다. 부족한 전세보증금은 아프리의 지원과 사용주, 조합원의 기금으로 보충하였다. 1975년 4월 이전 개관한 노동교실은 곧장 1개월 과정 교양교실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노동교실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청계상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양, 중등, 기술, 특별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며 조합원의 문화복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1	2
3	3

1.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대한제국, 한밭교육박물관
2. 조선어학회, <계몽약학회 연문 교수 지침>, 일제강점기, 국립한글박물관
3. <청계피복노조 평화교실 제1기 수료식>, 1972.8.31, 전태일기념관



4	5
6	

4. <새마을노동교실 설립 계획서>, 1972, 전태일재단
5. <새마을노동교실 개관 축하 전보>, 1973.5, 전태일재단
6. <새마을노동교실 개관식>, 1973.5.21, 전태일기념관

노동야학의 시초

일하면서 배우자! '새마을노동교실' II

▶ 되찾은 '새마을노동교실'

1975년은 '새마을노동교실'을 되찾은 해로 청계노조가 큰 성과를 이룬 해이다. 1973년 5월 21일 새마을노동교실 개관식 이후 신문 오보와 민주인사 초청 문제를 구실 삼아 정부와 설립추진 위원장이자 노동교실 임대주인 유인규 사장이 일방적으로 빼앗은 교실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 따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실로의 운영 정상화라는 조합원들의 숙원은 250여명의 조합원이 동아상가 옥상 노동교실에 모여 직접 점거농성을 하고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농성은 성공적이었다. 그동안 수차례 이뤄진 노사간 합의에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던 일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한 농성으로 끝이 났다.

노동교실 운영권을 되찾은 지부는 빠른 시일 내 노동교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 기자재부터 유림빌딩 3층 교실로 임시 이전했다. 이곳은 노동교실 정상화를 위한 지부의 노력에도 쉽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원의 커져가는 실망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설립 당시 계획한 교육 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974년 5월 16일 아프리의 도움으로 마련한 곳이었다. 새로운 장소인 을지로 6가 소재 건물 3층은 22평 남짓한 공간으로 당초

계획한 모든 교육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조합원 모금과 연합노조와 아프리의 지원을 받아 같은 건물 4층까지 교실을 확장했다.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한국노총, 연합노조, 노동청 관계자 및 아프리 관계자가 모인 유림빌딩에서 ‘새마을노동교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림 1, 2)

▶ 유림빌딩에서 새로운 시작

1975년 4월 30일 유림빌딩 3층과 4층에 교육실과 실습실을 마련한 청계피복노조는 새롭게 새마을노동교실의 문을 열었다. 3층은 강당과 같이 넓은 공간으로 교양교육, 대의원대회, 토요오락회와 같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데 사용되었고, 4층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져 있어 재단이나 봉제와 같은 기술교육을 하거나 도서관, 사무실로 운영되었다. (그림 3, 4)

개관 다음날부터 시작된 노동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5월 한 달간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동상식, 일반상식, 한문, 생활영어, 레크리에이션 등 노동자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매회 강연에 4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된 ‘새마을노동교실’은 교육뿐 아니라 조합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 활동, 일반 조합원 회합, 행사 및 기념식 등으로 항상 붐볐고, 노동교실을 되찾은 조합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되었고, 노조의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 ‘새마을노동교실’ 무엇을 배우나요?

청계피복 새마을노동교실은 학교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직업훈련, 노동조합교육 등으로 시장상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교양과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교양교육반은 일반 노동자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배울 수 있는 반으로 연소 노동자에게 중학교 기초 과정을 교육하거나 일반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했다. (그림 5) 또한 부수적으로 일반조합원 교육, 간부 실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이해와 참여의식을 개발하고, 간부는 필요한 이론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직의 확장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교실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림 6, 7)

기술교육반은 시장상가 노동자들의 제품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적인 직업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기술교육반은 재단과 봉제 교실로 나눠 각각 기초반, 연수반, 연구반으로 구분하여 취업준비생이나 재단보조와 시다, 그리고 재단사, 미싱사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그 밖에 노동자의 여가 활용 반으로 자수, 수공예제품 등 부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특별교육반이 운영되었다. 교육 이외 운영된 도서관은 구비한 교양서적을 노동자에게 열람 또는 대여하여 노동자들의 지식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그림 8, 9, 10)

이처럼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교육은 1975년 5월 새로운

장소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1977년 2월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장기표의 구속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발언한 이소선 어머니가 법정모욕으로 구속되면서 노동교실도 강제 폐쇄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또다시 위기를 맞아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요구하며 결사 투쟁을 감행하게 된다. 노동교실이 폐쇄되어 조합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청계 노동자는 이후 1980년대 주목받기 시작한 야학을 통해 배움을 이어갔다.



1

2

1. <청계피복노조소식 제4호>, 1975. 9. 15, 전태일기념관
2. <새마을노동교실 이전 개관식>, 1975. 5. 21, 전태일기념관(기증 유정숙)





3
4

3. <새마을노동교실 봉제교실 미싱류>, 1975, 전태일기념관
 4. <새마을노동교실 도서실>, 1975, 전태일기념관

일하면서 배우자!

무료 수강생 교육 계획 안내

무료 수강생 모집 안내 말씀

교육과학기술부는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사설주 어리운의 및
 이 발달하임을 지원하고이 아울러 현재 모집된 어리운의 노고에 대하
 이 결정으로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에 예외의 지원 격려한 자의 정책적의 제약을 느꼈고
 실은 그동안 노동법정임을 이루어와 전국노총과 전국연합노동조합들 중
 공 조적, 이해사, 이해리와 제호노동자구, 동화상가 주지회사의 사임주
 어리운 그리고 자적 인사 어리운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과 조항될 어
 리운의 성취있는 발이 축적의 교양교육(1개월간)과 중등교정 제6기
 교육(14일 주교) 그리고 제호노고 일지한 제호노고 제1기 기술교육(20
 명 주교)을 각각 제호노고 정문사에 합의하여 회담을 감지하여 일어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적 제호는 노동교양은 정문노고와 1975년도의 교육정행 제
 회와 자적 교양교정회 제3단계 교육과 제1인 모집 제호기 교육 그리고
 남로 부호제(가정)는 동제기는일(가정)을 양성하기 위한 동제교정 제
 1기 교육을 각각 차용과 같이 정지할 정행을 제호고 주교 주강생들 모
 일하노나 일하면의 제호는 중기와 제호를 정행하여 제각 참여할 수 있
 도록 제호의 제호정행과 정행을 제호기 주지사 아라는 것입니다.

1975년 10월 1일

전국연합 노동교양 정제지국주
지부장 최 출 업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여 교양 고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고실

재단 재단사를 양성하는 기술교육 고실
정문간사기: 취직지도 고실

실지교육으로: 이십사용:양상 통제 고실
정문노고 제호제도로 파문: 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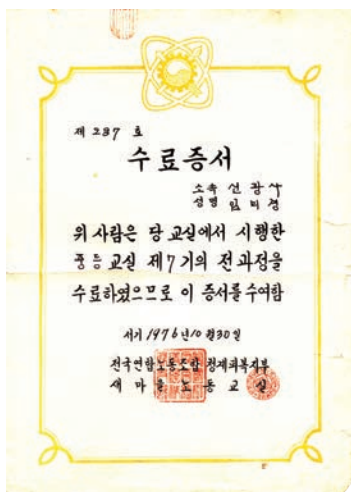
전국 연합노동조합 청계파복지부
새마을 노동교실

880381

각 과정별 모집 요령							
구분	교 양 고 실	재 단 고 실	봉 제 고 실				
교 육 내 용	밀르 양고	재단 기초과정	봉제 기초 과정				
응 모 자 격	수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단기초의 기초 과정을 배우려는 초·중·고	봉제(이십) 기술의 기초 과정 교육을 원하는 16세이상의 초·중·고				
모 집 인 원	제한없음	30명(선착순으로 실시 결정후 야당)	20명(선착순으로 실시결정후 야당)				
교육 기간 및 수업 시간	75. 10. 13~12. 20, 매일오후 7시30분~10시	75. 10. 13~12. 20, 매일 오후7시~10시	75. 10. 13~12. 20, 매일오후 2시~6시				
수 업 료	무 료	무료(단, 상습 제호미 일부를 별도 부담)	무료(단, 상습제호미 일부를 별도 부담)				
모 집 기 간	제한 없음	75. 10. 6~11					
응 모 방 법	당일 참가와 동시 개별 등록	조정의 수강신청서를 노동교실(북지리원4층) 또는 지부사무실(평화 시장 옥상)에 제출하고 등록(단 수강신청서는 교실 또는 지부 사무실에서 배부)					
문 의 처 노동교실 29-8549 지부사무실 25-2106	교양교실	필요일	필요일	주요일	목 요 일	금 요 일	
	교육내용	레크레이선	형이	관용	정활상식(가정) 특별교육 건강, 주선, 사(노동상식,사회,문화상식)등문제,영려기타		
	활 동						

8
8

8. <새마을노동교실 수강생 교육 계획 안내문>, 1975.10.1, 전태일재단



9

9. <새마을노동교실 재단교실 1기 작품전>, 1975. 4, 전태일기념관

10

10. <새마을노동교실 제7기 수료증서>, 1976.10, 전태일기념관

청계피복노조의 기초를 형성하다.

아카시아처럼 풍성하게 '아카시아회' (그림 1)

청계피복노조 지부는 설립 초기 조합원 모집에 총력을 다했다. 체불임금 해결 노력과 주휴제 실시, 야간업무 단속 사업이 노조의 인식변화와 조합원 모집에 크게 기여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원서 작성과 조합비 납부를 제안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는데, 노조 부녀부장으로 지원한 정인숙이었다. 부녀부장이 된 정인숙은 평화시장 내 여성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단합하기 위해 가톨릭노동청년회(JOC)에서 배운 소모임 방식을 제안했고,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림 2.

3)

1971년 5월 소모임 발족을 위한 동구릉 야유회가 개최되었고, 첫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모임을 주도한 유정숙이 모임의 이름을 '아카시아회'로 제안했다. 아카시아처럼 풍성하고, 아카시아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모임이 되자는 의미였다. 또한, 노조에 뿌리를 둔 나무라는 뜻도 가졌다. 초대 회장은 유정숙이 되었다.

아카시아회로 시작된 소모임은 신규 회원이 늘어나자 무궁화클럽, 레몬클럽을 만들어 신규와 기존 회원을 분리했다. 이후 여성 소모임은 대망, 수정, 봉선화, 물망초, 크로바, 장미,

태양, 코스모스, 목화, 옥자매, 솔잎, 백합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여성 소모임의 증가는 남성 소모임 및 남녀 혼성 소모임에도 영향을 주었다. 남성 소모임은 초기 평화시장 내 수많은 사업장에 흩어진 재단사, 니혼바리사¹⁾ 또는 시아게사²⁾, 또또사³⁾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간부 중심으로 청계노조 지부 산하의 소모임으로 발전했다. 이후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 모임인 산울림이 생겨났고, 니혼바리클럽은 노동상식을 배우기 위한 모임 바위솔회(일명 청암회)로 통합 활동하였으며,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제일친목회, 들불회와 같은 직종별 소모임도 만들어졌다. 특히 남성 소모임은 아카시아회와 함께 1970년 초반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며, 남녀 혼성 모임인 등산모임은 여가와 오락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신규 조합원 모집과 단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림 4.5)

초기 아카시아회 산하 소모임은 주로 노조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간부들과 가까워졌고, 아카시아회에 소속된 여러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맡아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거나,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열기도 했다. 또한, 열악한 봉제공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원 각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

1)니혼바리(二本針)사 : 쌍바늘이란 일본어로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두 줄로 박는 기계를 다루는 일종의 미싱사를 가리키는 말.

2)시아게(しあげ)사 : 완성된 옷을 다리미로 다리는 다림질을 포함한 끝손질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현장에서 시아게라고 부르기도 함.

3)또또사 : 소매 끝 또는 옷을 여미는 곳에 금속의 똑딱이 단추를 다는 사람을 가리킴.

다락방·환풍기 시설, 공장 내 욕설 등 문제점을 찾아 공유하고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뿐 아니라 미용과 꽃꽂이와 같은 흥미 위주 강좌나 어린 노동자를 위한 연소근로자 위안잔치, 바자회, 야유회 개최, 수재민 돕기 등 나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한자 사용이 많던 시대에 맞게 한자 공부도 진행했고, 1인 1통장 만들기, 직장에서 시다에게 반말하지 않기와 함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자는 뜻의 ‘감미천 운동’ 등을 벌였다. 이처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활동으로 노조는 잘 모르지만 아카시아 모임이 좋아서 가입한 회원들이 늘어났다.

아카시아회는 최초 정인숙이 제안한 대로 카톨릭노동청년회(JOC) 방식에서 착안해 만들었지만, 청계피복노조 지부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노동자로 이뤄진 친목 모임으로 시작한 아카시아회는 조합원 모집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그 이름 아래 다양한 소모임으로의 확장은 평화시장 내 개별적으로 흩어진 봉제 사업장 노동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노조 초기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1. 「아카시아 통권2호」, 1976, 전태일재단



2

2. 청계피복노조지부 동구릉 야유회 단체사진, 1970초, 이승철

3

3. 청계피복노조지부 동구릉 야유회에서 노조 간부인
이승철의 연설, 1970초, 이승철

(등록번호 10) , 클럽등록원서

클럽발족일자	1976년 10월 30일	전 화	교내외 우편
클럽 명칭	(물 망 초) 아카시아 산		

목 적 : 부하는 회원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며 학기와 보충을 하고
 나아가서는 여성이 할수 있는 취미를 다진다.

회 장 단	회 장 한 희진	부회장 김 정옥	홍 부	이정애	서 기	고 정옥
회원번호	연극부장	모용부장	공보			
	신 영환	김 연옥	조영희			

본 클럽은 청계 피복 지부 조합원으로 회원의 자발적인 구성으로 원만한 클럽 활동 및 노동조합의 정년 참여와 친목의 과감한 실천을 도모하고자 각부의 적극적인 응원의 지도 편달을 원하며 클럽으로서 조합에 대한 도움 의무를 준수할것을 서약하며 명칭과 목적화 원을 위와같이 정수 하되 본 지부의 지도적인 감독하에 외부산하 클럽활동을 철저히 금지시킴을 바랍다.

등록인	한 희진	등록번호	1976년 10월 30일	주 관 자	조각우	최태식
회원	성상 명세서를 별외에 기입 등록 하심다.					

전국 연합 노동조합 청계 피복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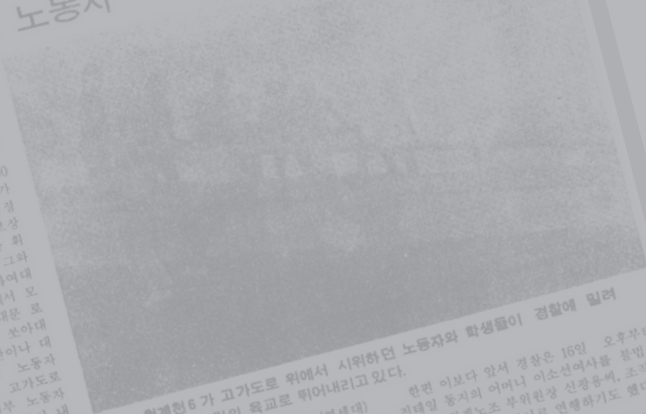
4

5

4. 클럽 등록원서
 <청계피복지부 아카시아회 산하 물망초>, 1976, 전태일재단
5. 청계노조 아카시아회 산하 백합클럽 등산, 1972. 1, 기증 유정숙

청계노조 합법성쟁취 대규모 투쟁 2 천여명 시위, 노동자·학생 38명 구류

19일 오후 1시 서울 평화시장
거리 밑에서 열렸던 시위인 '청계노
조 합법성 쟁취대회'가 경찰의 강경
진압을 받으며 노동자와 학생 약 2천
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구
류된 38명 중 19명은 노동자, 19
명은 학생이었다. 구류된 노동자
들은 1시 40분경 교내로 풀려났
다. 구류된 학생들은 2시 40분경
교내로 풀려났지만, 일부 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입원했다.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대규모 투쟁이 19일 오후 1시 서울 평화시장 거리 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류된 38명 중 19명은 노동자, 19명은 학생이었다. 구류된 노동자들은 1시 40분경 교내로 풀려났지만, 일부 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청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교내로 풀려났지만, 일부 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청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교내로 풀려났지만, 일부 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병원에 입원했다.

노동자 생계권
노동강도 경
남북 정상회담 이
으로 가득 차있다
'통일'은 모든 이들
15 민족화해
TV에서는 연
평안과 서울을
산악자 상봉
의 숙원을 풀
"정상
남한
으로
이라
지
한
국